

↑ 코스피 2617.80 (+5.37)	↑ 코스닥 744.18 (+3.70)
↑ 금리 (미국 9년) 2.936 (+0.004)	↑ 환율 (원-달러) 1385.80 (+0.80)



불 붙은 美 대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왼쪽 사진)이 미국 대선(11월 5일)을 불과 8일 앞둔 28일(현지시각) 미시간주 앤아버 유세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조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같은날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자신을 향한 나치·파시스트 공세를 정면으로 받아쳤다. (관련기사 3면) /뉴시스

## 사업지 7곳 취소, 본청약도 지연 시행사 손절에 ‘청약 난민’ 속출

### 사전청약 후폭풍

#### ① 예고된 실패

#. 파주 운정 주상복합 3·4 블록의 사전청약에 당첨된 A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역에 인접한 좋은 입지에 지난 2022년 6월 사전청약 당시 경쟁률은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2023년 12월이라고 안내했던 본청약은 2024년 하반기로 미뤄지더니 올해 7월에는 일방적인 계약취소를 통보받았다. 청약 당점자의 지위는 한순간에 날아갔고, ‘청약 난민’ 신세가 됐다. 본청약만 기다리고 있던 A씨를 책임지는 곳은 없었다. 사전청약을 부활시켰던 장관은 이미 자리를 떠났고, 주택공급 조기 확대라며 잘 써먹었던 현 정부의 수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대책이 없진 마찬가지다.

정부가 제도적 한계를 이유로 사전청약제를 사실상 폐지했지만 후폭풍은 이제 시작이다. 올해 들어서만 사전청약 사업지 7곳이 취소됐고, 대부분의 사업지가 당초 예상보다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다. 막상 본청약으로 가도 사전청약 당시보다 수천 만원씩 오른 분양가가 당점자들을 울리고 있다.

#### ◆사전청약, 공급 조바심이 부른 예고된 실패

사전청약은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다. 일반적인 선

파주 운정 주상복합 3·4블록  
**사전청약 취소 안내**

귀하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관련 사전청약 계약 취소관련 안내합니다.

본 사전청약의 경우 당 사 및 귀하의 입주자모집공고의 유의사항 및 사전공급 계약서 제8조(기타사항) (7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는 최초 안내와 같이 본 청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취소를 안내드려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운정 주상복합 3, 4 블록 사전청약 취소 안내 공지.

#### 영종도 제일풍경채 계약취소 통보 사전청약 취소 선언만 울들어 7곳

#### 공사비 급등·규제로 사업성 약화 본청약 가도 분양가 수천만원 올라

(先)분양보다도 빠른 ‘선선분양’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사전예약’이란 이름으로 도입됐다가 입주 지연이 문제가 되면서 2년여 만에 없어졌다.

사전청약이 부활한 것은 문재인정부 때다.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공급 조기 확대를 내세우면서 2020년 8월 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 7월 시행했다. 공공에 이어 민간분양까지 사전청약을 확대하며 공급 속도전을 펼쳤다.

재도입 당시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당첨자가구는 기존 주택 시장의 매수 대열에서 이탈되므로 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량 공급 계

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공공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며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부작용이 반복됐다. 토지보상이나 문화재 조사 등 일반적인 사업 지연 요소에 팬데믹에 따른 공사비 급등까지 겹친 탓이다.

현 정부라고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올해 5월 공공 사전청약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공공분양 ‘뉴홈’ 50만호 공급에 사전청약을 대대적으로 써먹은 뒤였다. 본청약 지연 문제가 불거졌지만 올해 1월 말에도 서울 위례, 서울 대방, 고양창릉 등 4700호의 뉴홈 청약 접수를 받았고, 10만명에 가까운 청약자가 몰렸다.

#### ◆ 민간 사업은 취소…공공도 본청약 지연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 사전청약 당점자들은 최근 계약취소를 통보받았다.

시행사 제이아이주택은 “건설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을 받고도 취소를 선언한 민간 사업지는 올해 들어 총 7곳으로 늘었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자동차·양궁 이어 야구까지 ‘정의선의 리더십’ 신화 쓴다

〈현대차그룹 회장〉

양궁·야구 아낌없는 지원에 KIA 타이거즈 올 KS 우승컵 전동화 시대 체질 전환 성공



더십이 자리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의 스포츠 사랑은 남 다르다. 양궁에 대한 애정은 이전부터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양궁의 경우 선수들은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 공정하고 깨끗한 양궁협회, 선수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걸 지원해주는 정의선 회장”이라고 답했을 정도다.

야구에 대한 사랑도 느낄 수 있다. 정의선은 과거 KIA 타이거즈 구단주를 맡을 정도로 야구에 쏟은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유명하다.

야구는 선수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상대팀의 전력을 분석해 승부를 내는 다른 스포츠들에 비해 더 전략적인 요소가 두드러진다. 이에 KIA 구단에서는 지난해 1군 선수단과 코칭스텝에게 배틀릿 PC 1대를 선물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판단 승인

교육부, 대학총장 영상 간담회 의대 학사 정상화 공감대 형성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마친 뒤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것은 지난 2월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기 시작한 뒤 8개월 만이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하고 현재까지 대부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일 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할 경우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고, 미복귀 시에는 제적·유급 조치하도록 ‘조건부’ 휴학 승인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학 총장들과 의사단체는

연이어 정부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조건없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오늘 간담회에서는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학생들이 복귀하고 의과대학 학사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에 정부와 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라며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의정갈등 중재안 등 대학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아직까지도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기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번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ihj@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윤 “라·복 야합 우리안보 위해 가하는 엄중 사안… 긴장감 갖고 리스크 관리”  
▲ 한 총리 “평생교육시설 환경개선… 만학도도 무상급식 드실 날 오길” (사진 뉴시스)

▲ 여 중진 5명 공동성명, “대통령실 결자해지해야… 당은 갈등심화 안 돼”  
▲ 민주당, 김건희 특검·이재명 무죄 서명 여론전 본격화



▲ 조국혁신당, 30일 금투세법 당론 발의… “예정대로 내년 시행”  
▲ 김용현 국방장관,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 (사진 뉴시스)